정치하는엄마들 www.politicalmamas.kr	논평		
	보도일시	2018. 11. 22. 목.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18. 11. 22.	총 2매 (별첨 0건)

정치하는엄마들 정기국회 요구안

“이제는 원 포인트 개정이다!”

▲어제(21일) 여야 5당 원내지도부의 ‘사립유치원 관련법 정기국회 내 처리’ 합의 환영
▲다음 주 초 자유한국당 등 자체법안 발의 예상, 선택과 집중 필요
▲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방식 변경조항(유아교육법)이 11월 정기국회 핵심이다!

□ 어제 오후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 협상을 실시하여 6개 합의안을 도출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어제 합의안에 ‘사립유치원 관련법 정기국회 내 처리’ 내용이 포함된 점을 환영한다. 지난 12일 교육위 법안소위에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대거 불참하여 유치원3법 논의가 불발된 점을 상기하면, 어제 합의는 유아교육 정상화를 향한 큰 진전이라 볼 수 있다.

□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입법 합의와 관련해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유치원3법의 통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각 당에서 사립유치원 관련해 발의한 법안을 보아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당은 이르면 다음 주 초쯤 자체 사립유치원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해진다. 당초 12월에 발의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오는 12월 7일에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12월 발의는 사실상 정기국회에서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지난 12일 교육위 법안소위 해태와 14일 홍문종 의원 주최·한유총 주관 국회 토론회, 19일 김성태 원내대표의 비리유치원 국정조사 요구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한국당이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2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회기 내 반드시 유치원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격일간 <누가 한유총을 비호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카드뉴스를 발행하여, 사립유치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공립 확충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반대한 정치인들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회원들은 지난 10일간 여야 지도부 및 교육위 소속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유치원3법 통과를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와 감사적발 명단이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 국민적인 분노와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국정감사는 정치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유치원3법이 국회에서 잠자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에 머무를 것이다.

□ D-15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단 15일 남았다. 병합심사를 주장하는 한국당의 관련 법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학부모들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유총 토론회의 내용을 볼 때, 한국당이 발의할 법안은 한유총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보상을 요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즉 민주당, 정의당이 발의한 관

련 법안들과 시각차가 크고 병합심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기국회 내 사립유치원 관련법 통과라는 원내대표 합의안은 지켜지지 않거나, 학교급식법 등 무쟁점 법안이나 무쟁점 조항들만 통과될 확률이 높다. 즉 국민적 요구에 한참 미달하는 용두사미 정기국회가 될 수 있다.

□ 무엇보다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정부와 힘겨루기 하고 있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문제다. 누구보다 관련 입법이 지연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국가관리는 거부하고 국가지원 확대만 요구하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이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의 폐원신청 유치원을 70여 곳으로 집계하고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학부모들과 예비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유아교육 현장은 이미 유치원 대란이 일어난 것만 같다.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나 온라인 육아교육 커뮤니티들마다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신입생 모집 지연 통보가 수도 없이 제보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불안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지난 19일 김성태 원내대표의 비리유치원 국정조사 제안에 대해서도 '결국 한유총 시간 벌어주기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진 배경이다. 관련 입법이 지연될수록 한유총은 웃고, 아이들은 운다. 유아교육 정상화의 골든타임이 바로 이번 정기국회인 까닭이다.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유치원3법의 주요내용 만해도 10개가 넘는다. 여기에 발의 예정된 법안들을 감안하면 수십 개의 쟁점이 논의되어야 한다. 다음 주 수요일(28일)로 예정된 차기 교육위 법안소위 전에 한국당이 자체 법안을 발의한다 해도 정기국회 폐회 전에 남은 시간은 일주일, 게다가 현재 본회의가 예정된 29·30일, 12월 6일·7일과 주말을 제외하면 제 법안소위가 열릴 수 있는 날짜는 28일과 12월 3~5일 단 나흘에 불과하다. 즉 선택과 집중 없이는 골든타임이 허송세월 되고, 새 학기는 헌 학기가 되고 말 것이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요구한다. 이제는 원 포인트 개정이다!**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국회가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단 하나의 조항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누리과정 지원금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 개정안**이다. 박용진 의원이 10월 23일 대표발의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045)을 보면 현행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문에 단서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다. 단서의 내용은 '다만,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한 문장으로 국회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고 유아교육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교비회계에서 성인용품을 사고, 루이비통 가방을 사고, 벤츠를 리스해서 설립자가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가 범죄 행위(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묻지마 폐원과 신입생 모집 거부, 처음학교로 도입 거부 행태 등 이미 벌어진 유치원 대란이 정기국회 폐회와 동시에 일단락 될 것이다.

□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 개정으로 누리과정 지원금 지급방식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데 집중하라! 비리유치원 사태가 촉발된 10월 11일 MBC뉴스데스크는 교비회계로 성인용품을 구입하고, 루이비통을 구입했다가 감사에 적발된 동탄 환희유치원을 보도했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처참하게 망가진 유아교육 현장에 망연자실했고, 아이들의 행복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에 고개를 떨궜다. 사립유치원의 이익만 대변하고, 아이들과 학부모를 외면하고, 국가 재정이 허투루 쓰이게 한 정치권과 교육당국을 질타했다. 교비회계를 사적유용해도 무죄가 되는 법의 허점을 메우는 데서 국회는 출발해야 한다.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지급방식 변경 없는 정기국회는 뭘 하든 빈 손 국회일 뿐이다.

2018년 11월 22일
정치하는엄마들